

민주 전남 10곳 중 9곳 경선 대진표 확정, 모두 2~3인 경선

여수갑, 4년 만의 리턴매치...순·광·곡·구 갑 '비현역 맞대결' 여수을, 김희재 vs 조계원...해남·완도·진도, 윤재갑 vs 박지원 나주·화순, 영암·무안·신안 3자 경선... 과반 실패 시 결선투표

더불어민주당 전남 지역 경선 대진표가 속속 확정됐다. 10곳 중 9명이 확정된 가운데 모두 2~3인 경선으로 치러진다. 전남 지역 경선 일정은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지연됐고,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선거구 확정안이 뒤늦게 통과되면서 1일 한꺼번에 확정 발표됐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발표한 4·10 총선 공천을 위한 9차 예비후보 심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여수갑은 주철현 현 의원과 이용주 전 의원 간 2인 경선이 결정되면서 4년 만에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여수를 선거구에서는 재선을 노리는 김희재 의원에 맞서 '이재명의 복심'으로 알려진 조계원 중앙당 부대변인이 2인 경선으로 1대 1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나주·화순 선거구는 신정훈 현 의원과 손금

주 전 의원, 구충곤 전 화순군수 간 3인 경선으로 결정됐다. 신 의원과 손 전 의원은 총선 리턴매치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치르기로 해 피말리는 경선전이 예상된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윤재갑 현 의원과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1대 1 맞대결이 치러진다. 해남·완도·진도는 '올드보이 배제론'이 제기되면서 박 전 실장의 경선 참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바 있다. 무안·신안·영암에서는 3선에 도전장을 낸 서삼석 의원과 김태성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천경배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부실장 간 3인 경선이 치러진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 무안·신안·영암은 선거구 논의 과정에서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가 놓여온 소멸과 지

역 간 갈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도 2인 경선이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서 전남에선 유일하게 현역 없이 김문수 당대표 특보와 손훈모 변호사 간 2인 경선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순천 동향에 고려대 동문 간 맞대결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담양·장성·함평·영광 선거구에 대해 3선 이개호 의원을 단수 공천하려다 "황제·밀실·셀프 공천"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박노원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이석형 전 함평군수 간 3인 경선으로 변경했다. 최대 격전지인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도당 위원장 출신 김승남 의원과 정치신인 문금주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 간 1대 1 승부로 치러지



고 목포도 현역 김원이 의원과 언론인 출신인 전남에서는 순천·광양·곡성·구례 을 선거구 배중호 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2인 경선을 치른다. 김희면기자

국민의힘, 16년 만에 광주 선거구 8곳 모두 공천



국민의힘 광주지역 출마 예비후보. 왼쪽 위부터 동남갑 강현구·동남을 박은식·서구갑 하현식·서구를 김윤. 아래 왼쪽부터 북구갑 김정명·북구를 양종아·광산갑 김정현·광산을 안태욱 예비후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광주 8개 선거구 후보자를 모두 확정했다. 3일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호남권 출마자 면접을 실시해 광주 서구를, 북구갑,

북구를 선거구 3곳의 단수 후보를 결정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 16년 만에 광주 8개 선거구 모두 후보자를 공천했다. 서구를 김윤 후보(60)는 광주 진흥고와

선거구 8곳 후보 단수 공천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 전 대우자동차 세계경영 기획단장과 국민의힘 서울시 지방선거 공천심사위원을 역임했다. 북구갑 김정명 후보(57)는 전남대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고, 전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부 부지부회장, 현재 국민의힘 광주시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북구를 양종아 후보(49)는 지난 22일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문화예술분야 인재로 영입했다. 양 후보는 전남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 부산MBC, 광주MBC 아나운서 출신으로 지역에서 클래식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획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다. 이에 앞서 동남갑에 강현구 전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장, 동남을에 박은식 전 호남대안포럼 공동대표, 서구갑에 하현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를 당협위원장, 광산갑에 김정현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광산을에 안태욱 전 TBN광주교통방송 사장을 공천했다. 서선욱기자

광주 북구의회, 상호존중의 날 SNS 캠페인

공감문화 확산 및 조직 내 갑질 근절 기여 기대



광주 북구의회(회장 김형수)가 조직 구성원 간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 형성을 위한 상호 존중의 날 SNS 캠페인을 연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당행위 근절 대책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캠페인은 의회 구성원 간 상호 존중 의식을 제고하고 배려와 공감 문화 확산을 통해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내 갑질 근절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캠페인은 매일 1일 북구의회 의원 2명씩 상호존중을 독려하는 내용의 슬로건이 담긴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 촬영 후 해시태그 (#상호존중 #배려 #공감연대 #광주북구의회)와 함께 의원 개인 및 북구의회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형수 의장은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배려와 공감하는 문화가 확산되어 우리 사회에 상호 존중 의식이 제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소통과 참여'를 바탕으로 신뢰받는 청렴 의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및 상호공감 소통 교육, 청렴 퍼포먼스, 갑질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연중 지속할 방침이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